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 장학월보

Vol 246 2013 / 8



# 의자의 슬픔

글 의령교육지원청 주무관 / 시인 곽향련

의자가 기울어진다  
앉았던 내가 일어서면 중심이 스르르 풀리며  
뒷모습을 보이는 의자  
어디가 잘못됐지?  
다리를 잡고 고장난 흔적을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 내게서 등을 돌린 반점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지  
그때, 내 등의 서늘함을 꺼안느라 며칠 밤을 설쳤다  
의자가 네 개의 다리로 앉아 있다는 것은 나의 착각  
그것은 제 슬픔을 몸속으로 움크린 모습일지도 모른다  
언제나 내 서늘한 등을 꺼안아 준 의자  
등과 머리를 받쳐 주면서도 고통을 참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  
이제는 낡은 제 등을 한 번 보라고 내 등을 떠민다  
온종일 내 몸을 그에게 맡기고 앉아 밥을 먹고 휴식을 하는 동안  
그는 늘 서서 일해야 하는  
한낱 도구일 수밖에 없는 슬픔, 그 안에서  
나는 늙어가고 있었다  
그는 늘 나를 위해 삐걱삐걱 울었다



contents



04 권두언

소통을 위한 만남 · 공감을 위한 교육 / 고영진

06 생생현장

08 장학칼럼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교과서의 한계를 벗어난 교과서이다 / 하을태

09 특별기획 / 학교체육활성화

스포츠맨이 보여준 성공적인 삶의 법칙: 롬바르디 룰 / 하남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계획 / 김동암  
이해와 존중의 실천-스포츠 품성 교육 / 김인수  
용원 3Up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 / 최우람  
운동은 인간의 움직임의 표현이자 삶의 희망이다 / 박상욱

18 교육정보

교육기부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 성수민

20 좋은 수업

Math telling으로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수학 공부해요 / 손진희  
학교에서 배우는 교양-인문학 수업 / 오도화

24 함께하는 학교

문화예술로 다양한 꿈을 펼치다 / 김진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 정병식  
국어예술융합수업은 우리를 설레게 해요 / 박유란

31 이달의 교사

과학수업이 입고 가야 할 감성의 옷을 디자인 하는 선생님 / 김운화

33 삶의 향기

벌 대신 받은 참외 / 김진홍  
어른 공부 / 임소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 조성우

36 동아리 탐방

3C 골프 · 도예동아리 / 이동일

38 행복한 책 읽기

39 지상갤러리

난꽃 향기



표지사진  
경남교육 공감 토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9월호 모집 기간 : 2013년 9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함께하는 학교, 좋은수업, 삶의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3년 8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총괄 |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심광보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오영선

편집위원 | 김정애, 김강희, 이우경, 이광호, 홍연숙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 소통을 위한 만남 · 공감을 위한 교육

해가 갈수록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대지를 더 이글거리게 만들고 전력의 한계에 대해 날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우리는 열대야 속에서 또 불면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개발을 통해 얻는 편리함은 에너지 고갈과 환경파괴 등 값비싼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세상만사 모든 이치가 양날의 칼인 듯합니다.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좇아야 하고 때로 어떤 것을 양보하고 또 지켜내야 하는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올여름입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왔지만 지난 6월 19일부터 저는 창원을 시작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을 만나는 ‘공감토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7월 19일 김해를 끝으로 경남 5개 권역을 돌았던 이번 만남은 도민과 학부모님은 물론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4만 5천 여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싶었습니다.

창원, 통영, 진주, 거창, 김해를 돌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부모의 마음, 교사의 바람,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등 그야말로 소통의 과정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모든 국민은 관계자입니다. 이미 학교를 다녀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자녀 뿐 아니라 손자와 손녀 조카 등 가족과 친인척 누구라도 학교와 닿아있는 인연으로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인지 토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는 학부모가 아닌 분도 있었고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도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늘의 교육 또한 우리 사회로부터 아직은 칭찬보다는 질책과 비난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번 공감토크를 통해 당연히 야단 들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토크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님은 물론 많은 분들이 건의하고 개진하고 때로 꾸짖는 이야기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절대 보고 들을 수 없는 학부모의 진정어린 마음이고 교육 가족의 냉철한 시각이자 교육을 성원하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갈수록 학교통폐합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시골 작은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모두가 떠나는 농산어촌을 지키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단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그 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통폐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존폐 여부를 경제논리로만 결정할 수 없다는 철학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했습니다. 무엇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일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저와 객석에 나란히 앉은 젊은 부부의 모습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통합학급 담임선생님에 대한 서운함을 눈물로 이야기했던 장애아를 둔 어머니, 선생님이 먼저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일침을 놓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공감토크 마지막 무대에서 참으로 아픈 회초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일어서서 아픔을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혼자 울음을 삼켰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다문화 가족도 함께 했습니다. 아직은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는 고맙기도 하고 또 아직도 함께 하는 데 인색한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공감토크를 통해 크고 작은 경남 교육현안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어떤 문제는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지만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은 더 많은 생각을 모으기 위해 교육청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 분과 현장에서 함께 한 시간은 소통이 공감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 8.

경상남도교육감 

1



2



# 생생현장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3



4

- ① 미래교육재단기금전달
- ② 꿈나르미 힐링센터 협약체결
- ③ 제3회 대학진학박람회 개막식
- ④ 전국소년체육대회 해단식 대회기 전달



- 5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경남지방경찰청-경남교육청 학교폭력예방 MOU체결
- 6 스티브김 특강 교육감 인사말
- 7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 8 안보체험 MOU 체결
- 9 폭력예방 골든벨 대회 (통영교육지원청)
- 10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밀양교육지원청)
- 11 2013. 초등학생 합창·합주 경연대회 (산청교육지원청)





##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교과서의 한계를 벗어난 교과서이다.



글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과 과장 **하을태**

인터넷과 통신환경의 발달로 교육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쇄된 교과서와 칠판에 의존하는 수업으로는 다양하게 쏟아지는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에 힘이 부친다. 이 시대의 학생들은 휴대폰과 스마트기기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콘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가히 디지털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디지털세대들은 지식과 정보 획득 능력과 콘텐츠 활용 능력이 탁월하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자료의 재생산 능력 또한 우수하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형화된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육활동을 고수한다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수업형태로 디지털세대와 맞서기보다 오히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수업모형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그들의 디지털욕구를 채워주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는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인쇄된 교과서 즉 서책형교과서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를 그때마다 담아낼 수 없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지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바뀌어진 지식을 서책형교과서로는 신속히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서책형교과서의 내용을 콘텐츠화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디지털교과서 사용으로 서책형교과서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습진단까지 할 수 있다. 이보다 더욱 큰 변화는 디지털교과서 사용으로 자료가 개방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협업을 통해 자료를 재생산할 수 있다. 학생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학습활동은 교사가 서책형교과서를 통해 정형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환경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교사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라 학생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특별기획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 학교체육활성화

체력과 건강은 삶의 기본조건이다.  
우리 학생들을 전인적이고 창조적인  
미래형 인간으로 성장시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육교육  
활성화의 목표가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



## 스포츠맨이 보여준 성공적인 삶의 법칙 : 롬바르디 룰

글 경상대학교 교수 하남길

21세기는 치열한 경쟁 시대이다. 어떤 분야에서나 전국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혹자는 경쟁은 피하고 심판처럼 살면 된다고 하지만 심판 또한 경쟁을 피할 수는 없는 존재이다. 우리네 청소년들도 입시 경쟁 속에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고, 학부모나 교사들도 그 경쟁의 틀 속에서 함께 신음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어차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삶이라면 부모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자기가 선택한 분야를 곳곳이 걸어가며 경쟁 자체를 즐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이런 시각에서 ‘롬바르디 룰(Lombardi Rule)’이란 용어를 탄생시킨 미식축구 감독, 빈스 롬바르디(Vince Lombardi)의 인생 역정은 우리의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 인생의 성공은 선택에 달려있다

빈스 롬바르디는 1913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후손이었다. 아버지는 정육점을 운영했지만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었던 터라 아들 빈스가 신부가 되길 원했다. 어린 시절 사제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빈스는 가톨릭계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정작 빈스가 되고 싶었던 것은 신부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American Football)선수였다. 그는 풋볼 팀이 없었던 미션스쿨에서 농구, 야구부로 활동해보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자 아버지를 졸랐다. 그리고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풋볼 팀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 1933년부터는 포담대학교(Fordham University)로 진학해 풋볼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탁월한 선수가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대학 졸업을 앞둔 그에게 손을 뻗치는 프로팀은커녕 실업팀 하나도 없었다.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포담대학 로스쿨로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기로 했지만 그것 역시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다. 그는 로스쿨 학업을 포기하고 다시 풋볼의 길로 들어섰다. 이미 선수로서는 실패했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풋볼 지도자의 길이었다. 그는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1939년, 26세의 빈스는 연봉 천 달러의 세인트 세실리아고등학교 풋볼 팀 보조 코치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라틴어와 과학 과목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 풋볼 팀 코치를 보조하며 코치의 역량을 강화해갔고, 1942년 감독으로 승진하여 몇 차례 우승을 이끈 뒤에는 다시 도약을 꿈꾸었다. 1947년에는 포담대학 보조 코치, 1948년 웨스트포인트(육사)

공격 코치 등을 거치며 자신만의 코칭 노하우를 축적해갔다. 그리고 41세에 프로팀 뉴욕 자이언츠 코치직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무명선수 출신의 그에게 감독직을 제의하는 프로팀은 찾기 어려웠다. 이미 선수로서 큰 좌절을 겪었던 빈스로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렸다. 1959년이였다. 22년의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에게 기회의 좁은 문이 하나 열렸다. 꼴찌 프로팀 팀 그린베이 팩커스(Green Bay Packers)의 감독 자리로 향하는 문이었다.

시민구단 그린베이팩커스는 1919년 창단되었으나 위스콘신의 그린베이는 프로 미식축구팀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작은 도시였다. 최악의 재정 상태에 몸값이 비싼 선수라곤 찾을 수 없었다. 전적도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시즌 승률 10%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스는 망설임 없이 감독(Head coach)직을 수락했다. 그리고 선수들과의 첫 미팅에서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름도 없는 초짜 감독이 큰 소리를 치자 선수들은 어디서 3류 감독 한 명이 등장해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빈스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22년간 감독직과 우승을 꿈꾸고 있었고, 꼴찌 팀의 감독 자리는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중한 기회였다.

###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만의 룰이 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룬 인물들은 뚜렷한 자기 삶의 원칙이 있게 마련이다. 빈스도 그가 ‘우승’이라는 말을 내뱉었을 당시 콧방귀를 끼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삶의 원칙이 있었다. 이른바 훗날 ‘롬바르디 룰(Lombardi Rule)’이라 불리게 된 팀 경영 철학이었다.

① “우승이 목표인 팀은 우승할 수 없다.” 그린베이 팩커스의 감독이 된 빈스는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던 선수들에게 목표가 뭐냐고 물었다. 시즌 10전 9패를 당한 선수들이었지만 명색이 프로 선수라 답변은 “우승!”이라고 했으나 소리는 작고 말꼬리는 내려갔다. 그 때 빈스는 “목표가 우승인 팀은 절대로 우승할 수 없다. 목표가 오직 우승뿐인 팀만 우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힘’을 굳게 믿었던 빈스는 선수들에게 승리 지향적 태도부터 길러주고자 했다. 팀의 목표를 오직 우승뿐이라고 정했다. 그리고 선수들을 향해 “자신이 없으면 완전히 쓰러지거나 벌떡 일어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그쳤다.

② “걸을 수 있다면 달릴 수도 있다.” 빈스는 지도자로서 선수들과의 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 자신의 언어적 감각을 키웠다. 그는 뛰어난 화술로 선수들을 다독이고, 용기를 주고, 열정에 불을 지폈으며, 철저히 다그치기도 했다. 전의를 상실한 선수들을 향해 인생에서 “누구나 패배의 상처는 있게 마련이니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달릴 수도 있다”며 선수들의 긍정적 마인드를 자극했다. 결코 듣기 편한 말만 하지는 않았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한 자들의 것이며, 단지 “달리기 위해서 달리지 마라”고 주문했다. 목표 의식이 없이 무작정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다.

③ “완전한 연습만이 승리를 보장한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무명 감독 빈스는 완벽한 연습만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었다. 그는 ‘연습을 위한 연습’은 필요가 없으며, ‘연습은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팀플레이를 위해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 훈련을 시켰고, 훈련을 할 때는 어떤 감독보다 간단명료한 언어를 구사했다. 어렵고 긴 말을 해서 한 명의 선수라도 전술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경우 팀플레이에 허점이 노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실수란 버릇이고, 패배도 승리도 버릇이라며, 끝없는 팀플레이 중심의 완벽한 연습을 통해 꼴찌 팀의 패배하는 습관을 승리하는 습관으로 바꾸어놓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보여준 승리를 위한 룰이었다.

###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1959년 9월이었다. 미식축구 시즌이 개막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승률 10%였던 그린베이패커스는 첫 경기에서 강호 시카고 베어스를 9-6으로 침몰시키더니 1년 만에 시즌 승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빈스에게 “올해의 감독상”이 주어졌다. 케네디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풋볼 팀 감독이 되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지만 빈스는 자기 선수들을 지켰고, 그 해부터 패커스는 날로 강해졌다. 그리고 1961, 1962년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정상을 차지해버렸다.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는 미식축구였고, 지금도 그렇다. 미국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 해 그들이 이룬 성취는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었다. 1965년 다시 내셔널리그 정상을 찍은 패커스는 1967년부터 슈퍼볼(Super Ball) 2연패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서 6번의 결승 진출에 5번 우승이라는 미식축구 역사의 위대한 기록을 남겼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빈스는 기적이란 땀으로 이룬 위대한 성취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1968년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패커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하는 평범한 팀으로 되돌아갔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롬바르디 룰

1968년 워싱턴 레드스킨스 감독으로 이적한 빈스는 또 다른 기적을 꿈꾸었으나 뜻밖의 심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계속하다가 1970년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가 스포츠를 통해 보여준 리더십은 미국의 경영학 영역은 물론 교육학을 비롯한 전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승리의 법칙을 상징하는 ‘롬바르디 룰(Lombardi Rule)’과 미국프로풋볼(NFL)의 슈퍼볼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Vince Lombardi Trophy)’의 명칭으로 남게 되었다. 빈스 롬바르디의 승리 지향적 철학과 소통방식, 연습방법, 리더십 등이 바로 ‘롬바르디 룰’이었고, 그것은 바로 승리의 법칙이었다. 빈스 롬바르디의 삶은 미래의 진로 결정에 고민하는 보통의 청소년, 자녀의 적성보다 집안 체면만 생각하는 학부모, 소통능력과 리더십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계획

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동암

지난 6월 24일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시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부터 시행될 학교체육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을 요약해 보면

### 첫째,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전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경우 체육전담교사가 체육시간을 담당함으로써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하였다.

[표 1]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예상 인원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추가배치인원	-	796명	796명	796명	797명	
누적인원	3,948명	4,744명	5,540명	6,336명	7,133명	3,185명
누적배치 학교수	2,713교	3,509교	4,305교	5,101교	5,898교	

그리고 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성을 갖춘 정규교원을 체육전담교사로 지정·배치하고 7학급 이하 학교에 체육전담교사 또는 시간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 둘째, 중·고등학교 체육수업 확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체육수업이 주당 3시간이다. 중학교 3학년만 주 2시간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2014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원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의 필수 이수단위를 10단위 이상, 6개 학기에 고루 편성하도록 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유형별 체육 필수 이수단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고등학교 유형별 체육 필수 이수단위 및 편성 현황

구분 (체육필수이수단위)	일반고 (10)	특목고 (5)	특성화고 (예술포함10)	자사고 (5)
편성현황 ('12년 1학년)	10.5	5.4	7.1	8.9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일반고의 경우에는 체육수업 시수에 변화가 없지만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사고에서는 수업시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사회 연계 운영 및 확대**

현재 학교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하였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연합회와 공동으로 스포츠클럽 리그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선호가 반영된 지역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넷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낮은 여학생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학생이 선호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남녀공학의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남녀를 분리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여학생 전용 실내 체육실과 탈의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2014년부터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의 스포츠클럽팀 1,000개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활성화하여 여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 지원**

운동부 학생 및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중점학급을 편성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등학교 체육중점학급 운영도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과 운동선수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학생선수가 줄어들므로써 엘리트 체육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학습할 수 있는 e-Shool을 구축할 예정이다.

[표 3] 연도별 학생 선수수

종목	학교급		초	중	고	계	증감
	연도						
전체종목 (56종목)	2006		25,127	29,033	27,981	82,141	10,623
	2012		23,907	26,059	21,552	71,518	감소

체력과 건강은 삶의 기본 조건이다. 우리 학생들을 전인적이고 창조적인 미래형 인간으로 성장시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육교육활성화의 목표가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

# 이해와 존중의 실천-스포츠 품성 교육

글 통영 진남초등학교 교장 김인수

## 1. 들어가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은 운동 기능의 향상, 건강한 신체를 형성하며 학교스포츠클럽 안에서 팀정신 및 규칙과 규율을 지켜야함을 배우고, 팀 동료, 상대팀, 심판, 코치, 관중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책임감, 자기 통제력, 팀워크, 리더십, 자신감 등을 발달시켜 개인의 정서 함양은 물론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한다. 또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밝고 명랑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2.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 가. 스포츠품성 하나! “난 할 수 있어!” 개별 스포츠품성교육

기초체력요소 및 자기신체평가를 통하여 체력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1주를 단위로 계획된 다양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개별 과제 해결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인성 함양을 유도하였다.

### 나. 스포츠품성 둘! “우리는 할 수 있어!” 클럽 중심 스포츠품성교육

핵심 스포츠품성 요소를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순 운동기능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학습 주제와 목표에 대해 분명히 인식시키고 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및 누가기록하였다.

### 다. 스포츠품성 셋!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실천중심 스포츠품성 교육

각종 교내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여 스포츠 활동 운영 보조요원 및 봉사요원 등으로 활동하며, 대회 참여 및 위문 공연 등 함께 배우고 익힌 소양을 발표하며 스포츠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클럽 자치회의를 통해 스포츠맨십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스포츠맨십 10계명’을 제정하여 실천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 3. 나가며

“맞춤형 체력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은 건강 체력의 증진은 물론 실천적인 인성을 함양에 기여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비롯된 인성요소의 학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격의 성장과 행복한 삶의 기초를 마련해주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질을 길러 줄 것이다. 또한 경남 특색 과제인 운동하는 학교의 취지에 잘 부합하여 교내 걷기, 달리기 활동의 습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원 3Up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

글 창원 용원중학교 교사 최우람

본교는 2013학년도 도지정 학교스포츠클럽 연구(시범)학교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용원 3Up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운영으로 건강체력은 물론 학력향상과 인성함양, 교육공동체가 소통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 ▣ 트라이앵글 1 : 학교스포츠클럽 For Me 프로젝트 (체력 + 학력)

- 뇌를 깨우는 전교생 '1110 달리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 신체활동을 통한 뇌 혈류량 증가 →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

### ▣ 트라이앵글 2 : 학교스포츠클럽 For You 프로젝트 (체력 + 인성)

-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교육과정 내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화
  - ▷ 매시간 활동 전 학습자료 · 동영상을 통한 스포츠 성품교육(인성교육) 실시(5분간)
- 배려와 나눔을 배우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짹짹 리그전' 운영
  - ▷ 5개 종목 16개 클럽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한 교내 리그전 운영

### ▣ 트라이앵글 3 : 학교스포츠클럽 For Us 프로젝트 (체력 + 소통)

-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공동체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토요프로그램 운영
  - ▷ 인근학교와의 '주말클럽리그전', 선배들과 함께하는 '홈커밍스포츠데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스포츠캠프', 지역스포츠클럽과의 '토요교류전'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단순한 건강 체력 증진의 문제를 뛰어넘어 체력과 인성, 학력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본교는 2011년 학교체육활성화 우수학교, 2012학년도 특색과제(운동하는 학교) 도지정 연구학교에 이어 2013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체력 향상, 올바른 인성 함양, 학교폭력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3Up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지속 추진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용원중학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운동은 인간의 움직임의 표현이자 삶의 희망이다.

글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사 박상욱

생명환경공법으로 만들어 내는 생명환경 쌀의 고장이자 공룡세계엑스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내 고장 고성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교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안전운행’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점심(12:20-13:20), 저녁(17:20-18:30)시간과 토요일(1,3주는 09:00-11:00, 2,4,5주는 10:30-12:30)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등 혼자 고민하고 사색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성숙되거나 건강을 지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마음을 잘 표출하며 나 자신을 다듬어 희망과 꿈을 올바르게 가꾸고 키워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학생들에게 움직임의 표현이자 삶의 희망인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과 토요일스포츠 활동 및 체육수업은 본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활동으로, 체육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시간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학생들의 함성소리가 들려온다. 체육관에서 배구, 농구를 하면서 또는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자전거를 타며 친구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운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온몸으로 부딪치며 즐거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땀으로 얼룩진 자신과 친구를 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커져 우정과 협동심은 더욱 견고해졌고 학교폭력 예방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운동하는 학교」이기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강건함으로 도전과 성취감을 맛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시민정신과 준법정신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도 함양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운동 열기는 바른 품성과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져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명품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듯 운동으로 자신의 평생 건강지킴이로 1인 1기를 연마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할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간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나서 학습할 때의 효과가 더 높아짐을 누구보다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 본교는 학생들의 열기를 담아 늘 운동하는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 경남농협지역본부의 교육기부 식(食)사랑 농(農)사랑

경남농협지역본부에서는 교육기부 활동으로 『식(食)사랑 농(農)사랑』 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도심속에서 농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며, 농촌 음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방문형 프로그램과 식체험 교육마을, 팜스테이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체험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전초등학교**

- 일시 : 2013.7.13.(토)
- 장소 : 비봉내 마을



**사파초등학교**

- 일시 : 2013.7.16.(화)
- 장소 : 빗돌배기 마을



**우암초등학교**

- 일시 : 2013.7.15.(월)
- 장소 : 빗돌배기 마을

## 1. 현장체험형 체험학습

순	지역	학교명	체험일	체험장소	순	지역	학교명	체험일	체험장소
1	창원	반동초	7.12.(금)	빗돌배기마을	11	사천	곤양초	9.13.(금)	비봉내마을
2	하동	고전초	7.13.(토)	비봉내마을	12	김해	봉명중	9.13.(금)	빗돌배기마을
3	창원	우암초	7.15.(월)	빗돌배기마을	13	진주	동진초	9.27.(목)	가뫼골마을
4	창원	사파초	7.16.(화)	빗돌배기마을	14	김해	금동초	9.27.(목)	빗돌배기마을
5	창원	신방초	7.26.(금)	오체향마을	15	진주	선학초	9.27.(금)	비봉내마을
6	창원	한려초	8.07.(수)	의신베어빌리지마을	16	진주	선학초	9.27.(금)	의신베어빌리지마을
7	산청	도산초	8.09.(금)	가뫼골마을	17	창원	풍호초	9.28.(토)	빗돌배기마을
8	함안	칠북초	8.30.(금)	오체향마을	18	진주	평거초	9.28.(토)	빗돌배기마을
9	거제	장목초	9.07.(토)	빗돌배기마을	19	양산	하북초	9.30.(월)	빗돌배기마을
10	창원	장북초	9.12.(목)	빗돌배기마을					

## 2. 학교방문형 체험학습

순	지역	학교명	체험일	순	지역	학교명	체험일
1	진해	덕산초	7.19.(금)	5	남해	설천초	7.19.(금)
2	창원	석전초	7.22.(월)	6	사천	사천초	7.22.(월)
3	김해	주동초	9.05.(목)	7	창원	하북초	9.05.(목)
4	남해	고현초	9.05.(목)	8	김해	진영대흥초	9.05.(목)

#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 방안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관련(1) -

글 경상남도교육청 상임변호사(학생안전과) 성수민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외에도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

### ■ 사례

고등학생인 A가 작년 중학교 다닐 때 당했던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한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 졸업한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사안의 경우에는 가·피해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여야 함. (『학교폭력 사안처리 QnA』, 교육부, 2012.12)

학생 A가 동급생을 폭행하였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가해학생 A가 전학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함. (『학교폭력 사안처리 QnA』, 교육부, 2012.12)





# Math telling<sup>1)</sup>으로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수학 공부해요

글 합천 해인초등학교 교사 손진희

## 1. 들어가며

복식학급은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한 차시 동안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학습해 나가기 때문에 복식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반은 3학년과 4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복식학급이다. 2개 학년 학생들 모두 단식학급 학생들과 비교하면 여러 면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수학적 개념, 원리 등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아이들이 수학을 쉽게 이해하며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충분하고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수학적 경험을 줄 수 있는 Math telling을 적용하여 복식학급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소인수 학급의 장점을 살려 학력신장 및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 2. 복식학급에서의 수학 학습지도

복식수업에 있어서 직·간접 지도 : 복식수업에 있어서 직접지도(직접학습)와 간접지도(간접학습)을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1) Math telling 용어의 정의 : 박동현, 양은진(2011).「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Math telling 교수·학습 자료, 제42회 전국 교육 자료전 설명서」에서 Math telling은 하나의 사건을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과정인 Storytelling과정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학적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수학적 활동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였다. 본 연구에서도 Math telling은 Storytelling을 Story 구성의 관점「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수학 1-1, p84~p85. 천재교육(주)」을 포함하여 이해하며 수학적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매개로 하는 모든 수학적 활동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복식수업 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구분	교수·학습 활동				시량	비고	
	3학년		4학년				
도입	직접지도	• 단원개관 • 학습활동 안내 및 학습 규칙 확인		• 공부할 문제 확인		7분	3, 4학년 통합
전개	직접·간접	직접지도	• 학습활동 1	간접지도	• 학습활동 1	8분	
		간접지도	• 학습활동 2	직접지도	• 학습활동 2	10분	
	순환지도	직접지도 • 학습활동 3 – 놀이활동 • 개별 맞춤 학습				10분	3, 4학년 통합
정리	직접지도	• 학습내용 정리 및 과제 제시				5분	3, 4학년 통합

### 3. Math telling의 적용

가. 수학 교육과정 분석 : 수학과 교육과정, 목표, 내용을 분석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업전략을 구안하기 위해 지도 내용을 추출한다.

3학년						4학년					
단원	차시	주제	학습내용	수업모형	Math telling	단원	차시	주제	학습내용	수업모형	Math telling
1. 10000까지의 수	1/8	1000의 이해	천을 이해하여 쓰고 읽기	개념형성	조작활동 수학동화	1. 큰 수	1/10	만의 이해	만을 이해하여 쓰고 읽기	개념형성	조작활동 수학동화
	8/8	놀이 마당	네 자리 수의 뛰어 세기	문제해결	놀이 활동		10/10	놀이 마당	큰 수 찾기	문제해결	NIE학습

나. 수업시간 활용 전략 : 학습자의 흥미와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도입부분에서는 수학적으로 재구성한 동화를 매개로 하여 동기유발을 하며 전개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념형성 및 원리탐구,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실생활의 예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구체물 조작 활동을 하며 생활 속 이야기들을 나눈다. 정리단계에서는 수준별 개별 맞춤 학습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생활 속 수학 만나기 : 생활 주변에서 수학과 관련된 문제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그런 다음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였고 수업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 퀴즈, 수학자 이야기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직접 수학송, 수학 이야기, 만화, 일기 등 다양한 수학적 활동으로 창의·인성을 함양시킨다. 또한 수학 공책에 생활에서 알아보기, 조작활동, 약속하기, 핵심 내용 정리, 내가 만드는 문제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수학 공책 정리를 습관화시키고 있다.

### 4. 마치며

처음에는 수학시간이 제일 싫다고 하던 아이들이 놀랍게도 지금은 쉬는 시간에 수학송을 흥얼거리고 서로 수학퀴즈 문제를 내기도 하며 “수학 언제 해요?”라고 수학 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든든함을 느꼈고, 나의 노력과 열정을 알아주는 아이들이 있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쉽고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적인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어른들로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 학교에서 배우는 교양 – 인문학 수업

글 창원봉림고등학교 교사 오도화

### 1. 의기투합(意氣投合)—동료 교사들과 인문학 수업을 구상하다.

언제부터인가 인문학이 대세다. 대기업 CEO들은 앞 다투어 직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자신들의 경영 철학과 기업 운영 방침이 인문학에 기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 교과 수업에서 인간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인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입시에 쫓겨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수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추구한다는 문구는 늘 포함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몰라 당황해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소양과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본교의 국어, 영어, 역사, 일반사회, 윤리 전공의 교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인문학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교사들 간의 협의회를 거치면서 수업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주제를 선정하였고, 이 대주제를 바탕으로 각자 전공의 특성을 살리되 유기적으로 통합된 개별 수업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틀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대주제에 맞춰 각 교과와 연계되는 세부 소주제를 정한다.
- ▶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사고력과 비판적 시각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한다.
- ▶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대학 입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한다.

## 2. 좌충우돌(左衝右突)-인문학 수업을 진행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 처음 만들어보는 형태의 수업이라 수업을 구상하며 많은 고민을 하였다. ‘과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기존의 수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교사들 간의 토의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대주제와 각 교과와 관련된 세부 수업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주제를 선정한 이후에도 전체 대주제와 관련하여 세부 주제들이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수업 지도안을 검토하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모니터링을 하기로 하였다.

대주제	문화란 무엇인가?
윤리과 선정 세부주제	호모 루덴스 - 놀이와 문화
역사과 선정 세부주제	비너스와 미인도 -근대 이전의 서양 문화 읽기
국어과 선정 세부주제	이야기의 힘-스토리텔링
사회과 선정 세부주제	착한 소비-공정무역과 세계화
영어과 선정 세부주제	East VS West -언어 속에 감춰진 서로 다른 시선
국어과 선정 세부주제	해학과 풍자 -직설과 은유
역사과 선정 세부주제	문화로 대중을 현혹시켜라-문화를 이용한 권력 유지의 역사
사회과 선정 세부주제	호모 노마드-스마트폰과 디지털 문화
윤리과 선정 세부주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자본주의와 소비문화

실제 수업은 창원봉림고등학교의 1, 2학년 학생 중 희망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업의 형태는 강의식을 지양하고, 교사가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모둠을 이루어 협력 학습과 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학습지 형태로 해당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1회 강의는 3차시(150분) 단위로 진행하여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와 수업 주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 ① 교사가 해당 차시에 다루게 될 주제를 설명하고 생각할 문제를 제시한다.
- ② 모둠별로 토론을 실시한 후 전체 학생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③ 토론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정리한다.

또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차례의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 특강은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학과장이신 신문방송학과 김남석 교수님을 모시고 ‘문화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좀 더 넓은 시야와 사고를 가질 수 있었고, 통합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특강은 김해클레이아크 미술관 최정은 관장님을 모셔서 ‘인문학으로 만나는 영화와 미술’을 주제로 세미나와 특강을 실시하였다. 앞서 다루었던 주제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문화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3. 교학상장(敎學相長)-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인문학 수업을 운영해 본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 우선, 기존 수업과는 다른 형태로 새로운 내용을 다루어 본다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그리고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스스로 생각해보고 재구성해가며 ‘가치를 정립’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적 만족감을 느끼고 세상을 보는 나름의 관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뿌듯해 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을 준비하는 5명의 교사들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처음 만들어 보는 형태의 수업이라 부담감이 컸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에 지쳐있었던 교사들에게 이런 수업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 간에 함께 연구하며 서로의 수업에 대해 조언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문화예술로 다양한 꿈을 펼치다

나의 추억이 담긴 진영대창초등학교에 2011년 공모교장으로 첫발을 내디디며 학교와 학생들, 지역민에 대한 큰 포부를 안고 다양성과 문화·예술교육으로 학생, 교사,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글 김해 진영대창초등학교 교장 김진태



- |    |    |                                |
|----|----|--------------------------------|
| 01 | 03 | 01 다문화이해독서교실                   |
| 02 | 04 | 02 제4회 전국다문화합창대회 합창 및 중창 수상 기념 |
|    |    | 03 대창 Dream & Love 콘서트         |
|    |    | 04 드숨 We오케스트라 공연               |

94년의 전통을 가진 진영대창초등학교, 내가 초등학교시절을 누비고 다녔던 운동장과 학교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의 추억이 담긴 학교에 2011년 공모교장으로 첫발을 내디디며 학교와 학생들, 지역민에 대한 나의 포부는 남달랐다. 학교를 크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지금의 대창초등학교는 뒤처짐없는 공부방을 운영해야할 만큼 학력이 떨어져 있었고, 김해시 관내에서도 다문화가정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오래된 시설, 그리고 가정환경이 어려워 도움을 받아야할 아이들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뛰어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들에게도 한 줌의 희망을, 꿈을 실어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엘 시스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케스트라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엘 시스템'은 위대한 음악가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희망을 경험하게 하는데 진정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대창초등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로 다양성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문화교육, 다양성 이해교육, 다문화합창단,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에 대해 큰 틀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학생, 교사,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 **하나, 친구사랑 공동체교육을 통한 다양한 문화에 눈을 뜨게 하다.**

본교는 2009년부터 다문화문화학당, 다문화지역중심학교, 글로벌선도학교 등의 다문화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중국 출신의 다문화가정학부모 장소홍 이중언어강사를 배치받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1-6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5시간의 다문화이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언어강사는 일반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의 장점, 중국 문화의 이해, 중국인으로서 바라본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중국어 배우기 등을 통해서 다문화사회로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방과후 중국어 동아리에서는 다문화가정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교실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정학생이 가지는 2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길러주는 동시에 일반학생들에게도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문화이해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학생 및 학부모의 가족사랑을 통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기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능력 및 학생진로지도 및 입시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열어 자녀의 진로지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었다.

### **둘, 다름과 차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다양성교육을 시작하다.**

본교의 다양성교육은 다문화교육, 영어교육, 다름과 차이, 문화예술교육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양성 독서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의 기초인성교육으로서, 올바른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의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의 폭을 넓힘으로써 더 나아가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인성교육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다양성 도서는 주로 인권, 차별금지, 반편견, 장애이해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선정하였다. 1~3학년과 4~6학년을 두 그룹으로 나눈 학년군별로 이해수준에 맞는 다양성 도서를 28권 정하여 학급에 비치해두고 학생들이 윤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성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편견, 차별, 인권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셋,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되다.**

다문화가정학생과 일반학생으로 이루어진 덕솜We합창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다문화합창대회에 참가 하여 인기상을 수상하였고, 중창단은 금상을 수상하였다. 음악을 통해 밝은 심성을 키우고, 무대에 서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소질과 적성을 찾아 자신감을 가지는 합창단원들의 모습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2012학년도에 교육부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오케스트라운영학교로 선정되어 문화예술체험 기회가 부족한 다문화가정학생들과 일반학생으로 구성된 덕솜We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농촌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관현악기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었지만, 파트강사 및 지도교사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현재는 관현악곡의 하모니를 아름답게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면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내면의 힘을 발견한 덕솜We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밝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2주에 실시된 학교폭력예방주간의 마지막 날인 7월 12일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하에 「대창 Dream & Love 콘서트」를 열어 합창단과 중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관현악 연주, 그리고 마지막엔 합동공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펼쳐 보이며 학생들에게는 작은 음악인으로서 무대에 섰던 성공경험으로 기억되고, 감동적인 무대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음악으로 하나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진영대창초 덕솜We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이번 여름방학에도 여름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부는 좀 못해도 내가 잘 하는 것 하나쯤 있다면, 마음이 외로워도 노래와 음악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바로 힘이 바로 본교의 문화·예술교육이 가진 힘이 아닐까한다. 진영대창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은 오늘도, 내일도 다양성과 문화·예술을 통해 자라날 것이라 믿는다.



글 김해 내동중학교 교장 정병식



02	01 We go together 공연
01	02 학급생일축하파티
03	03 두리두리튜터링



## 배움과 나눔이 살아있는 행복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 1.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내동중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배움과 나눔이 살아 있는 행복학교'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색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 2. 행복학교 특색사업

가. '친구야~ 생일 축하한데이' - 생일밥상 나누기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일 밥상 나누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친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편,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매월 초에 급식소 입구의 'Happy Birthday' 게시판에 그 달에 생일을 맞은 학생들의 이름을 게시하고 첫째 주 금요일을 '생일축하한데이'로 정해 생일축하 플랜카드와 함께 당일 학교급식을 생일 밥상으로 차려준다. 종례 시에는 학급별로 생일을 맞은 학생들에게

생일파이를 곁들인 간소한 파티를 열어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주고받으며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우의를 다지면 방송부에서는 그 달에 생일을 맞은 학생에게 띄우는 급우들의 축하 메시지를 접수 받아 생일축하한데이 당일 점심시간에 교내 방송을 통해 전달해줌으로서 교우관계를 돈독히 하고 건강한 정서발달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 또래 간 교육 기부 - '두리두리(do 利 do 利) 튜터링' 운영**  
 '두리두리 튜터링'은 영어 'do(하다)'와 한자 '利(이롭다)'의 합성어로 둘이서 가르치고 배우는 튜터링 과정에서 서로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학습 프로그램이다. 두리두리 튜터링의 운영은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대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가희망 학생들은 튜터와 튜티가 팀을 이루어 2인 1팀으로 대회에 신청하고 학습계획서와 일지를 제출하였다.

팀끼리의 학습 시간 및 장소, 방법 등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점심시간 30분간 4층 수학전용교실(남), 영어전용교실(여)에서 학습한 시간 중 출석상황에 따라 학기 중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

그 후 팀별 참가 희망자의 직전 고사 전과목 총점을 기준으로 다음 고사의 총점 향상도를 산출하여 학력향상 우수팀에게 시상하였다.

튜터링 실시 결과 1차 고사에서 이전 고사 대비 참가자들의 성적 향상도를 보면 138명 중 개인별 플러스 향상을 보인 학생이 총 119명, 86.3%, 마이너스 향상을 보인 학생이 19명, 13.7%로, 플러스 향상을 보인 학생이 월등히 많았으며, 향상의 폭 또한 크게 나타나 또래 간 협력학습프로그램이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 뮤지컬과 함께 행복한 꿈을 만든다 - 창작 뮤지컬**

우리학교 뮤지컬 동아리는 문화혜택에 소외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폭력, 성적 비관, 학교부적응 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Wee 클래스 상담실이 시도한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음악치료로 시작되었다.

뮤지컬 동아리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국토사랑 연구학교의 보고회에서 창작 뮤지컬 '독도 인더 헤이그'를 공연하면서 부터이다. 이 공연이 알려지면서 여러 차례 앙코르 공연이

이어졌고 올 2월에는 학교폭력과 입시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뮤지컬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We go together'을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하여 학생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작품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위안부'라는 멍에를 둘러쓴 할머니를 위로하고 학생들의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있다. 이 뮤지컬은 오는 7월 16일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하여 헌정하는 형식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뮤지컬동아리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2013학년도 교육부 선정 예술교육사업 학생뮤지컬 운영학교로 경남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뮤지컬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 치아건강관리 프로젝트 - 3! 3! 3! 운동**



3!3!3!운동은 우리학교 건강관리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치아건강관리(양치질) 요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루 3번, 반드시 3분이상, 음식을 먹은 후 3분 이내에 양치질하기이다. 바쁘고 정신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어릴 적부터 꾸준한 관리가 요하는 치아에 대한 관심과 청결 및 관리에 학교가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하며 지도에 나서고 학교에서의 청결 습관이 가정에까지 이어지면서 학부모님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3. 마무리**

배움과 나눔이 살아있는 행복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우리학생들이 끼와 소질을 살려 자기의 꿈을 펼치고, 21C를 주도할 수 있는 밝고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 국어예술융합수업은 우리를 설레게 해요.

글 김해 계동초등학교 교사 박유란

## 1. 국어예술융합수업이 뭐예요?

올해는 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업에 예술적 요소들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술적 인프라가 거리 곳곳에 구축되어 있고 예술교육을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술시간, 음악시간에 별도로 배우는, 시험칠 때 공부하는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예술을 아이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예술분야를 소재로 끌어들이 학생들의 창의적 언어표현력,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어과는 시수,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이 연구에 적합한 교과였으며, 2013년 2월부터 준비한 연구를 현재 담임하고 있는 2학년 3반 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첫 융합수업 시간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몽크’의 「절규」를 함께 감상한 후, ‘재미있는 말’을 넣어 감상소감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하며 칭얼거렸습니다. 첫 수업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반응과 결과물을 보고 ‘아, 아직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이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융합이라기 보다는 통합에 가까운 아주 쉬운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명화는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3, 4월의 명화’를 아이들과 함께 10점 정하여 교실에 전시하고 오다가다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 4월 융합수업 중 미술 작품을 소재로 융합할 때는 그 10점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죠. 아이들이 명화관련 책을 도서관에서 한 권씩 빌려, 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작품을 고르는 과정에서부터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고 우리는 학급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선정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5, 6월에는 조각 작품도 포함시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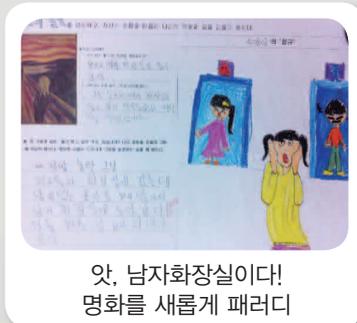


### 3. 선생님, 또 어떤 특별한 수업할거예요? 궁금해요.

지금까지 실시한 국어예술융합수업은 20가지가 넘어요.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3월초에 자기 소개를 할 때 학생의 얼굴 사진을 찍어 인쇄하여 주고, 몸은 그림으로 그리되 자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옷의 무늬로 꾸미게 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5월쯤 되면 다시 그 그림의 요소요소를 붙임딱지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문장을 쓰고 감상해 보면 좋아요. 인성 관련 주제의 뮤지컬을 보여 주고 이를 만화나 다른 예술 형태로 바꾸어 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다가 누군가를 만나 새롭게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주제의 뮤지컬 일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뮤지컬의 특징도 함께 찾아보았어요. 그 뒤 비슷한 경험을 모듈별로 돌아가며 말하기로 나누게 한 뒤 그 경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단한 역할극을 해 보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극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를 흥미있어 했고 감상하는 자세도 진지하였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를 선택하여 수수께끼를 만들거나, 다섯고개놀이 문제를 만들고 바꾸어 해결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고운 말을 써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고 난 후에는 짝과 함께 작사, 작곡을 해 보기도 했지요. 2인 1조라 부담이 덜하고 멜로디언이나 실로폰을 활용하여 작곡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했어요. 연주, 기보를 못하는 아이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어오면 제가 듣고 기보를 해주었습니다. 음길이를 모르고 음 높이만 아는 아이들은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서로 보충지도 하였고, 2절까지 짓고 싶은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였죠. 다음 날 노래를 완전히 외워서 짝과 함께 나와 노래 발표를 하였고, 저는 아이들이 만든 14개의 악보를 보고 반주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 무척 행복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패러디 작품을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이야기 글을 짓는 것도 좋아합니다. 잡지를 이용하여 모나리자를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미국 여행가는 모나리자, 선비 모나리자, 바깥스 떠난 근육맨 모나리자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지요. 절규하고 싶었을 때를 떠올려 몽크처럼 그림을 완성하고 경험을 이야기로 써 보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고 나쁜 말을 찾아본 후, 바른 말로 고쳐 만화로 재탄생시키기도 했고, 부채에 일기를 시로 바꾸어 쓴 뒤, 이를 노래로 만들어 불러보기도 하였지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수업은 많고 지면은 참 좁습니다. 아이들은 궁금해 합니다. “선생님, 우리 또 어떤 융합수업할 거예요? 궁금해요. 방학 지나고 2학기에도 할거죠?” 작은 변화를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행복해 함을 느낍니다.



뮤지컬 감상 후  
역할극을 했어요.



앗, 남자화장실이다!  
영화를 새롭게 패러디



영화 수수께끼도  
만들어 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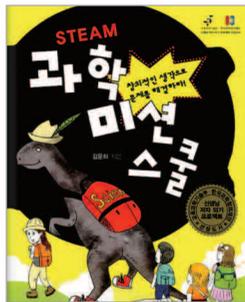
제10회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STEAM 과학미션스쿨,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의 저자. 진주제일중학교 김운화 수석선생님을 만나다.



## 과학수업이 입고 가야 할 감성의 옷을 디자인 하는 선생님

**Q** 선생님의 책, “STEAM 과학미션스쿨”은 어떤 책인가요?

A. 지난 3년간(2007-2010) 진주여중 영재학급, 경상대 영재교육원, 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들과 감성융합 과학수업을 한 사례들을 강의하듯 쓴 책입니다. 저는 그동안 영재 학생들을 교육을 하면서 제가 과학 교사로서 꿈꾸어 온 수업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동료선생님들과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였던,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선생님 저자되기’ 프로젝트에 당선되어 2012년에 세상에 나오게 된 책입니다.



**Q** “STEAM 과학미션스쿨”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A. 책은 4교시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교시에는 “생물시간에 시를 노래하라!”로 생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활동과 시를 읽으며 감성을 깨우거나 모둠 시를 쓰는 활동을 융합하여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화하는 수업이 실렸고요. 2교시에는 “공룡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라!”로 지층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화석산지를 탐사하면서 지층속의 공룡발자국화석을 관찰하고 상상하는 활동과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다양한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애니메이션을 학생들이 직접 감독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실렸어요. 3교시는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방을 고안하라!”로, 가방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간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수학적 활동 결과에 의해

가방을 디자인하여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수업합니다. 4교시는 “시간 내에 과학연극을 공연하라!”로 과학적 학습문제를 해결한 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연극소품을 즉석으로 만들고 연극연습을 하여 연극 발표를 하는 수업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을 넣어 ‘선생님이 들려주는 식물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주는 모스크바 동물원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주는 물질이야기’, ‘가우스 가속기와 함께 하는 발명 이야기’ 등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부록으로, “과학 시 쓰기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Tip”도 실렸어요.

**Q** 이 책이 선생님의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과 관련이 있나요?

A. 네. 책의 내용이 실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책을 보면 어떤 수업을 해왔는지 알 수 있으니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심사하시는 분이 이 책을 보았다면 아마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제가 그동안 과학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논문으로 써서 발표한 실적, 창의력올림피아드 지도실적, 과학탐구활동 지도실적, 영재교육과 융합인재교육을 다년간 꾸준히 실천해 온 실적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제가 과학교육에 감성을 융합하는 수업 모형으로 수업을 연구한 실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과학수업에 감성을 융합한다는 것은 좀 생소한데 어떤 것인가요?

A. 말하자면 인간의 뇌를 연구하여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과학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감성이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과학수업에서는 사실상 학생들의 감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성과 이성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서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밝혀진 뇌의 비밀입니다. 그러한 뇌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소위 '과학적 인간주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과학지식은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고 과학을 상황 속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하며 감성을 깨우는 과학교육으로 과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수업을 위한 모형은 과학지식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학수업에 어떻게 감성의 옷을 입혀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과학지식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모형을 개발, 다각적으로 검증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 수석선생님이신데 언제 수석선생님이 되셨으며 어떤게기가 있으신지요?**

A. 감성적 과학융합수업 모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업연구대회(2012)에 나갔고 수업동영상컨텐츠 개발 사업(2012)에도 함께 하였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고민하는 일을 하여 더욱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수석교사직에 공모하여 합격하였고 2013년 올해 3월 1일자로 임명받아 수석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리고 보니 선생님께서는 시집을 낸 시인이시라면 서요? 과학 선생님이 시인이시라니, 그래서 감성적인 과학수업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A. 2011년에 운 좋게 저는 학습연구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년 기간 동안 제가 평소에 틈틈이 써 두었던 시들을 묶어 “면지들의 정거장(다충)”이라는 시집을 내었습니다. 가장 감성적이고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를 쓰는 과정”은, 가장 이성적인 사고 과정이

필요한 관찰탐구 후 그 결과를 해석하여 “과학 탐구 보고서”를 쓰는 과정과 사실상 매우 유사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감성은 이성과 별개의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며 사실상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와 문과로 나뉘어 이과학생들이 수학, 과학만 공부하고 전혀 시를 배우지 않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생물 수업에서 시 쓰기를 융합한 수업을 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수업이 감성적 과학융합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자연의 관찰과 자연의 이치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인간의 본성과 사회생활의 의미를 새롭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으로부터 삶의 철학과 깨달음을 노래한 시를 저는 “과학시”라고 하며 학생들에게 과학보고서 대신 과학시를 쓰게 하여 과학시화전을 개최하고, ‘과학시낭송 UCC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작년(2012)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받았을 때 소감과 함께 제가 새로이 가지는 저의 꿈을 적으면서 저는 수석 교사가 되어 창의적인 수업자료들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동료 교원들에게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위한 도움이 되고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저는 과학연극, 과학수예, 과학애니메이션, 과학 스포츠, 과학 시, 전자게임 활용수업 등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학생들의 감성이 고려된 감성융합 과학교육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 써서 보급할 생각이며 ‘과학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모이면 ‘과학시집’도 예쁘게 엮어서 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별 대신 받은 참외

글 통영 충렬초등학교 교감 김진홍

내가 국민학교(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8살 때의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일이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슬그머니 사그라지는 석양 무렵이었다. 간단한 점심으로 허기를 때운 나는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꼬르륵’소리를 내면서 배가 고파왔다. 불현듯 우리 집 바로 위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큰아버님 댁의 밭에 노랗고 먹음직스러운 참외가 널려 있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우리 집 담을 넘어 큰아버님 댁의 밭으로 가서 노랗게 익은, 먹음직스러운 참외를 몇 개 따서 내 것 인양 밭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돌무더기 위에 앉아 보란 듯이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들에서 소를 먹이고 돌아오던 큰아버님 댁의 형이 나를 보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니, 거기서 뭐하노?"

나는 그 때에야 내 정신으로 돌아와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형이 저렇게 뛰어 가는 건 보나 마나 뻥한 거지……’, ‘아마도 큰아버님께 일러바치겠지.’ ‘어머니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

“지농이(진홍이) 이 놈 오데 갔소? 우리 참외 다 따 갔소. 당장 다 물어 내란 말입니다!” 라고 어머니께 호통을 칠 큰아버님 생각만으로도 겁이 난 나는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숨어버렸다.

‘우짜노?’, ‘머라카지?’, ‘인제내는 우짜되는 기지?’

별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계속 밖의 동정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시간은 또 얼마나 긴 시간인지…….

드디어 “제수씨!”하고 어머니를 부르는 큰아버님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호지 문에 침을 묻힌 손가락으로 문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아~ 주이소. 아~가 참외가 마이 묵고 싶었나 봅니더."

하시면서 커다란 꼴망태에 잘 익은 참외를 가득 담아 마루에 놓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께서는 영문도 모른 채

“와예? 와예?”하며 신발을 끌면서 마당으로 따라가셨지만 큰아버지께서는 손사레를 치시면서 “그냥 고마 잡수이소.”하시면서 대문을 나가셨다.

큰아버님 댁의 형이 내가 한 일을 일러바치자, 큰아버님께서는 꼴망태를 어깨에 메고 곧장 참외 밭으로 가 우리 집 식구 모두가 이들은 죽히 먹고도 남은 참외를 따오신 것이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기어코 알아내신 어머니께서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우리 큰 밭에도 만장수로 있는데 그기는 머하로 갔노, 요놈아!” 소리를 들으며 흠씬 맞아야만 했다.

별 대신 오히려 참외를 가져다 주신 우리 큰아버님,

비록 배우지 못하고 농사 하나만으로 살아가셨던 큰아버님이기는 하지만 대학을 나오고 높은 지식을 가진 그 누구보다도 넓은 가슴을 가지셨다고 생각한다. 별 만이 농사가 아니라 배고픔을 이해해 주신 큰아버님,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언제든지 그 넓은 마음을 본받고 싶어진다.



# 어른 공부

글 창원 월영초등학교 학부모 임소연(6-3 김시훈)

도서관까지 20분 남짓 걸어가는 동안 한껏 치장한 꽃들과 초록이 무성한 나무들을 마주하니 그리 싫지만은 않은 길이었지. 인생은 참 아리송해! 그치?

『어른 공부』를 지은 양순자 선생님은 37살, 젊은 나이에 서울 구치소 사형수 상담을 자원해서 30여 년 동안 사형수 교화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불안과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대. 2010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그해 두 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완치되지 않았고 현재는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대. 어때? 정말 멋진 어른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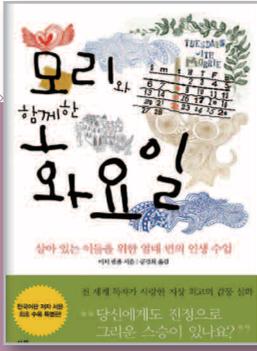
『어른 공부』책속에는 사형수들에 관한 얘기들이 많아. 텔레비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듯하여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었지. 다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을 기억하지?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에서 청송감호소로 이송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무과장이 먼 길가는 신창원에게 따뜻한 커피한잔 먹여 보내고 싶어 교무과로 불러서 “청송에 가서 잘 살고 나오기 바란다. 그곳까지 무사히 가주었으면 좋겠구나”하고 짧은 몇 마디를 건넸어. 그랬더니 몰래 준비해두었던 예리한 송곳 하나와 끈을 내놓으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더라. 갑자기 흉악범 신창원이 외롭고 나약한 인간으로 느껴지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구. 그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무관심과 냉대가 한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겠지.

선생님은 엄마란 힘으로 아이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 휘청거리지 않는다고, 아이가 꿈꾸고 맘껏 숨을 쉴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게 해주라고 하셨어. 부끄러웠어! 어른인 나의 잣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내었던 나는 스무 살이 되면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 그 후로도 20년이 더 지난 후에야 조금 알겠어. 나이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커다란 어른이 진짜 어른이란 걸. 어른의 사전적 의미가 무언지 알아?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야. 글썽 난 더 이상 자라지는 않는데 책임은 가끔 모른 척 하기도 해. 양순자 선생님은 나이만 많은 건 ‘어른’이 아니고 그냥 ‘늙은이’라고 하시더군요. 난 책임지는 ‘어른’이 돼 볼까 해.

오늘 언니네 가족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장복산에 갔었어. 다녀온 사람들이 경치도 좋고 벚꽃과 진달래가 예쁘다고 하더라구. 근데 웬걸 갑자기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오는 거야! 정상은 보이지도 않고 도시락도 못 먹었는데 말이야. 하는 수 없이 다시 내려오는데 비 오는 숲속이 나뭇잎에 윤기 있고 흔하지 않으니 오랫동안 아이들 기억에 남아 예쁜 추억이 되겠더라고.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지. 그 순간엔 아프고 또 아프지만 돌이켜보면 그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그게 어른공부지 싶어. 마지막으로 불교경전 『보왕삼매경』에 나온다는 한 구절로 마무리를 지을까 해.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 진정으로 그리운 스승과 함께하는 힐링(Healing)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미치 앨범)

미치 앨범 | 모리 슈워츠 (지은이) | 공경희 (옮긴이) | 살림 | 2010-01-27 | 원제 Tuesdays with Morrie

김해대청초등학교 교사 조성우

요즘 방송 매체를 보면 힐링 캠프와 같이 힐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현대 경쟁사회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유행을 넘어 최근에는 ‘힐링’을 앞세운 각종 프로그램과 상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는 교사로서 지친 마음을 다 잡고자 힐링 서적이거나 TV토크쇼를 제법 챙겨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위로와 다독임을 받는듯 하였으나, 결국 바뀌는 것 하나 없고 부족한 내 자신을 내가 포용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며 적잖은 실망감을 느꼈었다. 그런 실망감 속에서 나는 책장 속에 고이 끼워진 그 옛날의 베스트셀러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대학시절 절친한 사제관계였던 모리교수와 미치 앨범이 16년 후 다시 만나면서 이루어진 대화를 토대로 엮여졌다. 대학을 졸업한 미치 앨범은 음악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년간 거듭된 실패로 좌절감만 맛보다가 결국 음악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현실을 직시하게 된 미치 앨범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고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고 사회로 나가 TV와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하면 유명한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얻게 된다. 오로지 돈과 일에만 매달려 정신없이 살던 그는 심장이 터질듯이 일을 했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며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30대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TV를 키던 미치 앨범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만다. 루게릭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게 된 대학시절 정신적 스승이었던 모리 슈워츠 교수의 ABC방송국 토크쇼 〈나이트라인〉의 인터뷰를 보게 된 것이다. 그 후 미치 앨범은 매주 화요일 1100km를 날아와서 교수인 모리의 서재에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함께 꾸며나가게 된다. 그들은 열 네번의 화요일에 만났고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사실 책을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누구나 아는 내용일 수도 있다. 세상에 대한 관점, 자기 연민과 후회, 죽음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 또 감정, 돈, 결혼과 문화, 용서……. 하지만 그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뭘요?’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까지 읽었던 힐링 서적과 강연과는 달랐다. 개인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지적하거나 자화자찬격의 힐링 서적과는 달리 모리 교수 주위에는 온통 인간미가 넘치고 사람 사는 정겨움을 느꼈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의 잣대로 여기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 힐링을 바라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지 않을까 반성하게 되었다. 진정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남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지 않을까. 모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을 하며 나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자신만의 힐링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죽을 때 지니고 싶다고 하던데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책의 표지만 봐도 힐링이 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나도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진정한 스승이자 코치가 되고 싶다.



# 3C 골프 · 도예 동아리

글 산청 오부초등학교 교사 이동일

교육정책의 화두인 창의성(Creative), 인성(Character)과 더불어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에 참여하더라도 자신감(Confidence)을 가질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여 3C 골프 · 도예 동아리를 조직하고 즐거운 학교, 배려가 충만한 학교, 남들과 다른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교는 황매산과 지리산의 중간에 위치한 벽지학교로 오부흑돼지로 유명한 전형적인 농촌학교이다. 2013년 현재 2개씩의 복식학급과 단식학급이 편성되어 비록 전교생은 11명이지만 소규모학교의 특성상 독도탐방, 마라도탐방 등 테마있는 체험학습과 특성화된 동아리 활동으로 산청읍과 진주에서 전학을 오는 자랑스러운 학교이다.

오부초등학교는 방과후 활동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오카리나동아리, 웅변동아리, 발명동아리, 골프동아리, 도예동아리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화두인 창의성(Creative), 인성(Character)과 더불어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에 참여하더라도 자신감(Confidence)을 가질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여 3C 골프 · 도예 동아리를 조직하고 즐거운 학교, 배려가 충만한 학교, 남들과 다른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3C 골프 · 도예

골프교육은 자세와 공에 대한 집중력향상, 끈질긴 인내심, 타인에 대한 배려를 소중히 하는 인성교육에 탁월한 교육으로 게임활동이 힘든 소규모학교인 본교의 특성에 적합한 운동이었다.



도예교육은 3년 동안 계속되는 본교의 특색교육활동으로 흙을 형상을 만드는 창의성, 작품제작중의 집중력과 정서순화, 작품전시회를 통해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탁월한 교육이다.

## 2. 오부골프동아리

골프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방학 동안 골프연수를 받은 후 2013년 2월 2타석 6M×3M의 간이골프장을 설치하였다. 전교생에게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영역 중 10시간과 토요일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골프동아리활동 시간을 배정하고 프로골퍼를 초청하여 수준높고 체계적인 교육기부를 활용하여 동아리수업의 효과를 높였다.

비록 3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골프동아리활동은 실제 적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므로 가까이 있는 하동골프장에서 제1회 교내골프대회를 실시하여 실제 필드에서 자신이 익힌 기량을 직접 펼쳐 보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골프매너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 3. 오부도예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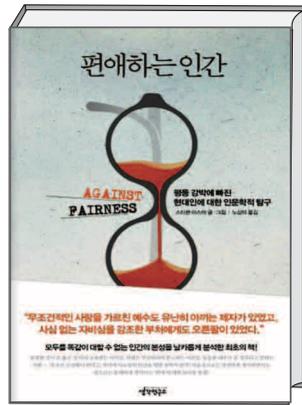
오부의 고령토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도예교육 일번지로 만들고자 2011년부터 결성된 도예동아리는 아이들의 진로교육 및 정서순화를 위해 매주 월, 화, 토의 3회 7시간 동안 다양한 성형방법과 장식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만든 작품으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제5회 꿈그릇 전시회를 열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도예동아리는 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12년 도예제작경시대회에서 3개 부문에서 1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어 오부초등학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도예동아리학생들은 유치원학생, 학부모들의 도자기만들기에 봉사활동으로 나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골프와 도예는 담당교사의 관심이 없으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동아리활동 주제이다. 비록 교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관심있는 분야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적용해보는 열정이 중요하다. 색다른 동아리활동을 배움으로써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한 교사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한다. 훗날 오부초등학교 출신중에 박인비를 넘는 프로골퍼와 산청의 민영기 작가님을 뛰어넘는 도예가가 나오길 감히 기대해본다.



# BOOK 만나다



## 편애하는 인간

스티븐 아스마 저/노상미 역 | 생각연구소 | 2013년 6월

그토록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 예수에게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철학적으로 공명정대한 부처에게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모신 아난다라는 제자가 있었다. 왜 보편적인 사랑과 공평성을 설파한 위대한 성자에게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 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한 성자들조차 결국 차별을 한 것일까? 굳이 대답을 하자면 성자들도 달리 어쩔 수 없었던 탓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편애를 하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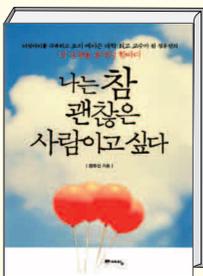
모두가 우승자가 되는 오늘날의 어처구니없는 '공정성'에 진저리를 친 스티븐 아스마는 편애를 비도덕적이고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도덕 낙담반을 다시 맞춘다. 자연과학을 기초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공정과 공평, 편애와 선호를 둘러싼 논쟁을 깊이 있게 분석해 편애하는 인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두가 편애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서로를 묶어주는 유대감에 기초한 편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 삶을 바꾼 만남 :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

정민 저 | 문학동네 | 2011년 12월

『삶을 바꾼 만남』은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 황상 사이에 이어진 도탑고 신실한 사제간의 정(情)을 정리한 책으로 진정한 스승도 진정한 제자도 찾아보기 힘든 요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운명적인 만남에 주목한다. 신유박해 외중에 멀리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간 정약용은, 당시 머물던 동문 밖 주막집에 작은 서당을 열고, 그곳에서 소년 황상을 만난다. 시골 아전의 아들이었던 황상은, 이 만남으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는 스승 정약용의 '삼근계(三勤戒)'를 평생 마음에 담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새김은 물론, 노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묘를 찾아 멀리 강진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한겨울에 발을 싸매고 천릿길을 여러 차례 다녀갈 정도로 우직한 마음을 지녔다. 아무도 '스승'에 대해 말하지 않는 요즘, 저자는 한 사람을 믿고 그 가르침을 평생 따른 황상의 일생과, 그 마음을 받아 제자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노력한 다산의 스승으로서의 자세를 조명한다. 서로 격을 갖추어 믿음으로 진실되게 이루어진 이들의 만남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 나는 참 관찮은 사람이고 싶다

정유선 저 | 예담 | 2013년 6월

학창 시절 발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던 뇌성마비 장애인 정유선. 그녀는 현재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것도 조지 메이슨 대학의 '최고 교수'이다. 2012년에 조지 메이슨 대학은 그녀의 교수법을 높이 평가해 '최고 교수상'을 수여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는 컴퓨터 음성기기의 도움을 받아 강의를 하는 그녀는 강의를 위해 일주일 내내 홀로 리허설을 한다.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교수가 된 이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이 '최고 교수'라는 결과를 맺었다. 이 책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기 위해 오늘도 정성 어린 한 걸음을 내딛는 '참 관찮은 사람 정유선'과 그녀의 참 관찮은 삶을 보여주고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가 보여준 의지와 노력,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그 능력을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 난꽃 향기

난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 옵니다.

멀리계신 어머니께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김정미 / 현) 창원중앙중학교 행정주무관

- 
- 공무원미술대전 입선3회
  - 대한민국문인화대전 특선및 입선
  - 경남미술대전 특선및 입선
  - MBC여성회화대회 특선및 입선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교육 · 문화(통신)분야 -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02-2100-6247)

- ❖ 민간자격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 시 : 불법 자격으로 규정,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사항을 미준수 : 벌금형
- ❖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 시 : 국가가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 취소 가능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사후 50년 → 70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0)

- ❖ (현행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
- ❖ (개정 저작권법)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

###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 저소득층 등)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7)

- ❖ 요금감면신청자격 확대 : 대상자 및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
- ❖ 요금감면대상 서비스 확대 :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